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1년 11월 2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종우, 차장 이화연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 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세계경제지표

		20.4/4	21.1/4	2/4	3/4	21.7월	8월	9월	10월 ⁵⁾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4.5	6.3	6.7	2.1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0.4	8.1	6.5	-0.5	-1.6	1.2	0.8	1.7
	산업생산 ¹⁾ (전기비, %)	2.0	1.0	1.6	1.0	0.8	0.0	-1.3	1.6
	ISM제조업 ²⁾ (기준=50)	59.0	61.4	60.8	60.2	59.5	59.9	61.1	60.8
	실업률 ¹⁾ (%)	6.7	6.2	5.9	5.1	5.4	5.2	4.8	4.6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175.9	73.6	170.1	236.3	109.1	48.3	31.2	53.1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5	-1.2	8.7	9.3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3	-1.3	3.9	1.0	-2.2	1.0	-0.3	..
	산업생산 ¹⁾ (전기비, %)	4.4	1.2	0.1	-0.2	1.3	-1.7	-0.2	..
	제조업PMI ²⁾ (기준=50)	54.6	58.4	63.1	60.9	62.8	61.4	58.6	58.3 [58.6]
	실업률 ¹⁾ (%)	8.0	8.3	8.1	7.5 ²⁾	7.6	7.5	7.4	..
	수출 ¹⁾³⁾ (전기비, %)	6.9	2.2	2.3	1.6	1.6	0.5	-0.4	..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1.8	-4.1	1.5	-3.0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0.2	0.4	-2.1	1.2	1.0	-4.0	2.8	..
	산업생산 ¹⁾ (전기비, %)	5.7	2.9	1.1	-3.7	-1.5	-3.6	-5.4	..
	제조업PMI ²⁾ (기준=50)	49.2	51.3	53.0	52.4	53.0	52.7	51.5	53.2 [54.2]
	수출 ¹⁾ (전기비, %)	13.0	4.4	5.4	0.3	0.1	0.3	-3.9	2.7
	수출 ¹⁾³⁾ (전기비, %)	13.0	4.4	5.4	0.3	0.1	0.3	-3.9	2.7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5	18.3	7.9	4.9	-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4.6	33.9	14.1	5.1	8.5	2.5	4.4	4.9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7.1	24.5	9.0	4.9	6.4	5.3	3.1	3.5
	제조업PMI ²⁾ (기준=50)	51.8	51.3	51.0	50.0	50.4	50.1	49.6	49.2
	수출(전년동기비, %)	16.6	48.8	30.7	24.4	19.3	25.6	28.2	27.1
	수출(전년동기비, %)	16.6	48.8	30.7	24.4	19.3	25.6	28.2	27.1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0.6	6.6	21.2	..	10.5	10.0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5) []내는 21.11월중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제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1.7월	8월	9월	10.11월	10월	11.24일
전세계 MSCI ¹⁾		724.2	741.3	709.5	715.6	745.2	749.3
- 선진국		3,069.3	3,141.4	3,006.6	3,031.6	3,174.7	3,198.1
- 신흥시장국		1,277.8	1,308.7	1,253.1	1,265.7	1,264.8	1,253.2
VIX ¹⁾		18.2	16.5	23.1	20.0	16.3	18.6
환율 ¹⁾	달러인덱스	92.2	92.6	94.2	94.3	94.1	96.8
	신흥시장국 ²⁾	56.7	56.9	55.2	54.9	54.8	52.9
	중국 ³⁾	6.46	6.46	6.46	6.45	6.40	6.39
국제금리 ¹⁾⁴⁾ (%)	미국	1.22	1.31	1.49	1.61	1.55	1.63
	독일	-0.46	-0.38	-0.20	-0.12	-0.11	-0.23
CDS프리미엄 ¹⁾ (bp)	브라질	176.7	176.2	206.1	204.4	248.8	250.1
	인도네시아	81.4	67.6	81.7	96.4	82.3	80.0
	한국	18.5	17.5	19.4	22.2	19.0	18.9
유가 ¹⁾⁵⁾ (달러/배럴)	WTI	74.0	68.5	75.0	80.5	83.6	78.4
	Brent	75.4	71.2	78.8	83.9	83.9	81.4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77.3	82.6	91.7	8.5 ⁶⁾	26.8	95.8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9.30~10.6일 기준 7) 10.28~11.17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19	2020	20.4/4	21.1/4	2/4	3/4	21.8월	9월	10월 ⁶⁾
GDP 성장률 ¹⁾	2.2	-0.9	1.1	1.7	0.8	0.3	-	-	-
(민간소비)	2.1	-5.0	-1.3	1.2	3.6	-0.3	-	-	-
(설비투자)	-6.6	7.1	-0.6	6.1	1.1	-2.3	-	-	-
(건설투자)	-1.7	-0.4	3.5	1.3	-2.3	-3.0	-	-	-
소매판매액지수 ²⁾	2.4	-0.2	0.9	1.7	2.7	0.1	-0.8	2.5	..
설비투자지수 ²⁾	-5.7	6.0	0.8	6.9	0.7	-2.3	-4.6	-1.0	..
건설기성액 ²⁾	-2.3	-4.1	2.5	-3.6	-2.4	-1.4	1.4	3.5	..
수출(통관) ³⁾	-10.4	-5.5	4.1	12.5	42.1	26.5	34.7	16.9	24.1
- 일평균 ³⁾	(-11.2)	(-5.7)	(6.4)	(15.9)	(37.9)	(29.3)	(28.9)	(28.1)	(24.1)
제조업생산지수 ²⁾	0.5	-0.3	3.1	3.4	-1.2	0.4	-0.4	-0.9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1.4	-2.0	0.9	0.7	1.7	0.9	-0.8	1.3	..
소비자심리지수 ⁴⁾	99.1	88.3	94.4	97.8	105.9	103.2	102.5	103.8	106.8 [107.6]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2	66	82	85	97	94	95	90	90 [90]
취업자수 증감 ³⁾⁴⁾	30.1	-21.8	-44.1	-38.0	61.8	57.7	51.8	67.1	65.2
고용률(원계열)	60.9	60.1	60.0	58.6	61.0	61.3	61.2	61.3	61.4
실업률(원계열)	3.8	4.0	3.7	5.0	3.9	2.8	2.6	2.7	2.8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6) []내는 21.11월중

[물 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0.4/4	21.1/4	2/4	3/4	21.8월	9월	10월 ⁴⁾
소비자물가 ¹⁾	0.4 (0.1)	1.1 (1.2)	2.5 (0.5)	2.6 (0.8)	2.6 (0.6)	2.5 (0.5)	3.2 (0.1)
▪ 농축수산물	11.4	13.3	11.9	6.9	7.8	3.7	0.2
▪ 공업제품	-0.9	-0.2	2.7	3.1	3.2	3.4	4.3
(석유류)	-13.8	-4.6	18.7	21.1	21.6	22.0	27.3
(석유류 제외)	1.0	0.5	0.7	0.7	0.8	0.9	1.3
▪ 전기·수도·가스	-4.1	-5.0	-4.8	0.1	0.1	0.0	1.1
▪ 서비스	0.0	0.6	1.5	1.8	1.7	1.9	3.2
(공공서비스)	-3.5	-2.1	-0.7	-0.4	-0.7	0.1	5.4
(개인서비스)	1.4	1.6	2.4	2.7	2.7	2.7	2.7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0.2	0.4	1.1	1.3	1.3	1.5	2.4
(관리물가 ²⁾ 제외)	1.1	1.1	1.7	1.8	1.8	1.9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0.7	0.9	1.4	1.8	1.8	1.9	2.8
기대인플레이션율 ³⁾	1.8	2.0	2.2	2.4	2.4	2.4	2.4 [2.7]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내는 21.11월중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1.7월	8월	9월	10.8일	10월	11.24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1.42	1.40	1.59	1.70	2.10	2.01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1.87	1.91	2.24	2.37	2.58	2.39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0.61	0.76	0.77	0.78	0.89	0.92
CP금리 ¹⁾²⁾ (91일물, %)	0.97	1.12	1.18	1.18	1.24	1.33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1.83	1.82	2.04	2.15	2.59	2.56
(3년, BBB-, %)	7.72	7.71	7.92	8.03	8.46	8.42
KOSPI ¹⁾	3,202	3,199	3,069	2,956	2,971	2,994
원/달러 환율 ¹⁾	1,150	1,160	1,184	1,195	1,169	1,187
원/100엔 환율 ¹⁾	1,049	1,056	1,058	1,068	1,029	1,032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9	-6.0	1.0	-1.3 ⁴⁾	-3.8	3.8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10.1~8일중

5) 11.1~24일중

-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0.4/4	21.1/4	2/4	3/4	21.7월	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0.3	23.6	22.2	26.9	11.3	7.9	7.7	10.3
▪ 대기업	-4.2	1.3	0.1	2.9	2.3	0.3	0.3	2.3
▪ 중소기업	14.5	22.3	22.1	24.0	9.1	7.5	7.4	8.0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30.9	20.7	20.9	22.2	9.7	6.1	6.4	5.2
▪ 주택담보대출 ¹⁾	19.3	17.1	13.3	17.5	6.0	5.8	5.6	4.7
▪ 기타대출 ²⁾	11.6	3.6	7.6	4.6	3.6	0.3	0.8	0.5
주택 매매가격 ³⁾ (%)	1.8	2.4	2.2	2.8	0.9	1.0	0.9	0.9
▪ 수도권 ³⁾⁴⁾	1.5	3.0	2.8	3.7	1.2	1.3	1.2	1.1
(서울) ³⁾	0.6	1.3	1.2	2.0	0.6	0.7	0.7	0.7
▪ 지방 ³⁾⁵⁾	2.0	2.0	1.6	1.9	0.6	0.7	0.6	0.7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21.6월까지의 해당월 2주, 7월부터는 해당월 말일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